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62
----------	------

발의연월일 : 2021. 4. 22.

발 의 자 : 최종윤 · 김진표 · 민병덕
백혜련 · 양이원영 · 오영환
이규민 · 이수잔^(비) · 이인영
인재근 · 임오경 · 조오섭
허영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2020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한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욕구 등을 고려하고,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5조제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을 “6세 이상 65세 미만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생 략)</p> <p>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p>	<p><u>제2조의2(기본원칙)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u></p> <p><u>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u></p> <p>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6세 이상 65세 미만인</u>-----.</p> <p>-----</p> <p>-----</p> <p>-----</p> <p>-----</p> <p>-----</p> <p>-----.</p>

자격을 갖는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